

 <b>인천광역시</b>	<b>보도자료</b>		시민이 <b>행복한</b> 세계 <b>초일류</b> 도시 <b>인천</b>
	배포일자	2023년 9월 8일(금) 총 2매	
담당 부서 여성정책과	담당자	• 여성권익팀장 김문숙 ☎440-2756 • 담당자 서은정 ☎440-2759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양성평등한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

-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대상, 폭력 예방교육 실시 -

인천광역시는 오는 8일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본청 및 소속기관 3급 이상 공무원 3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희정 토마토 대표 강사를 초빙해 「2023년 고위 공직자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폭력 예방 교육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해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교육을 의미한다.

이번 교육은 3급 이상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대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교육 참석을 희망하는 직원들은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들을 수 있다.

정희정 강사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이라는 주제로 조직 내 위계 폭력 발생 이유, 미디어 속 왜곡된 성통념 등 다양한 사례토론을 통해 관리자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대처 능력 배양을 위한 공무원의 역할 등을 강의한다.

김지영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장 내 구조적인 문제인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고 기관과 개인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등 우리의 인식과 가치관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존중과 배려 문화 확산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사업 등을 실시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와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